

하이닉스와 동맹 깨진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손잡나

HBM 제조 장비 한화세미텍에도 발주하자 한미 '발끈' 장비 공급가 28% 인상하고 특허침해 혐의로 한화 고소 "삼성전자·美 마이크론에도 납품할 수 있다" 엄포까지



한미반도체 TC본더.

한미반도체

한화세미텍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동맹을 깨트렸다. SK하이닉스가 HBM 제조 장비 HC 본더를 한화세미텍에 발주하자 발끈한 한미반도체가 HC 본더 가격을 28% 올렸다고 알려졌다.

HC 본더란 열과 압력으로 D램을 연결하는 장비다. 한미반도체는 특허 침해 혐의로 한화세미텍을 고소했는데, SK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 장비를 구매하자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에 HC 본더를 납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반도체는 최근 SK하이닉스 공장에 과격된 고객서비스(CS) 엔지니어 수십 명을 철수했다. 해당 인력은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TC 본더 100여 대를 보수하고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과격한 인력이다. HC 본더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등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TC본더는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에 사용되는 HBM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장비다. 가우라브 굽타 가트너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HBM은 클라우드 증설과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2028년 전체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의 30.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HBM 매출 또한 316억 달러(약 44조92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가 최근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에 오른 것 역시 엔비디아 HBM 공급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마이크론이 HBM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3E 12단 웨이퍼 테스트를 마치고 대량 양산 단계에 돌입하며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HBM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HBM 핵심 장비인 TC 본더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는 2017년부터 TC본더를 공동 개발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SK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으로부터 TC본더를 납품 받으며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동맹 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화세미텍은 2020년부터 TC본더 개발에 착수해 2025년 3월14일 SK하이닉스의 웨이퍼 테스트 마지막 단계를 최종 통과하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급망 다양화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다.

TC본더가 HBM 핵심 장비인 만큼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사이가 돈독하더라도 한미반도체에만 공급을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최근 싱가포르 장비 제작사 ASMPT의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한화세미텍과 더불어 다양한 장비 회사와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반도체가 한화세미텍에 특허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한미반도체는 2024년 12월4일 한화세미텍을 상대로 HBM 생산용 TC본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세미텍은 1월9일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보안을 요청했고 한화세미텍은 두 차례 연장을 신청했다. 한화세미텍의 대응이 늦

어지며 일각에서는 한화세미텍이 특허 침해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이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과 손을 잡은 것이 한미반도체의 심기를 건드리며 두 회사의 싸움으로 번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더해 한미반도체가 새로운 고객사를 찾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나오고 있으나 확실하게 확인된 내용은 없는 만큼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TC본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업계에서 특별한 일은 아니다"며 "다만 왜 이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분쟁까지 갔는지는 몰라서 업계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등은 HC 본더 관련 갈등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저커버그 "틱톡 성장에 맞서 메타 덩치 키우려 했다"

반독점 재판 3일째... 2013년 스냅챗 인수 시도 드러나 "우리가 그때 매수에 성공했다면 훨씬 더 성장했을 것"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3일 연속 메타의 반독점 재판에 섰다.

저커버그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린 메타 반독점 소송 재판 셋째 날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메타가 소셜미디어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고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나 적극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측 변호인으로부터 지난 이틀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저커버그의 법정 발언은 메타가 경쟁 대신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통해 소셜 미디어(SNS)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려 했다는 FTC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중

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2018년 등장했을 때 메타에 "매우 긴급한 경쟁 위협이 됐다"고 강조한 게 이날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이었다.

이어 "틱톡 인기로 우리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했다"며 "이는 매우 긴급한 사안이자 수년간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또 "틱톡이 현재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점도 짚었다.

저커버그는 메타가 틱톡·유튜브·애플(아이메시지) 등과 상당한 경쟁에 처해 있다면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란 기술 회사로서는 "경쟁자 제거가 아닌 일상적인 사업이었다"고 호소했다. "인스타그램이 인수되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만큼 성

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인수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견해를 강하게 밀고 나갔다.

저커버그는 또 "소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수억~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곳으로 성장시키려면 더 큰 회사 지원 없이 매우 어렵다"며 틱톡과 유튜브도 각각 바이트댄스와 구글이라는 대기업 소속임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짧은 동영상 기능 '릴스'를 추가한 것 또한 상당 부분 틱톡의 성장에 맞선 대응이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인기 SNS 스냅챗을 메타가 2013년 60억 달러에 인수를 제안했다가 스냅이 거절한 사실도 이번 재판에서 드러났다. 저커버그는 스냅 역시 당시 우리에게 인수됐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커버그에 이어 메타의 2인자였던 세릴 샌드버그 전 최고운영책임자(COO)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샌드버그

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메타에 있으면서 COO로서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 샌드버그는 이날 FTC 측 변호사들이 메타가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누려 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저커버그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저커버그는 이날 증언을 마지막으로 3일간 약 10시간 동안의 법정 출석을 마쳤으며 샌드버그의 증언은 다음 재판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약 두 달간 진행될 이번 재판에서 메타가 SNS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전날 저커버그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말 FTC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억 5000만 달러(6428억원)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잠재력은 기업에 나타났을 때 시장 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3일 연속 반독점 재판정에 섰다. 16일(현지 시간)에도 그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메타가 소셜미디어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고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나 적극 설명했다. 특히 인수 노력이란 경쟁 회피가 아니라 틱톡의 위협적 성장세 등에 대해 덩치 키우려 했다는 현실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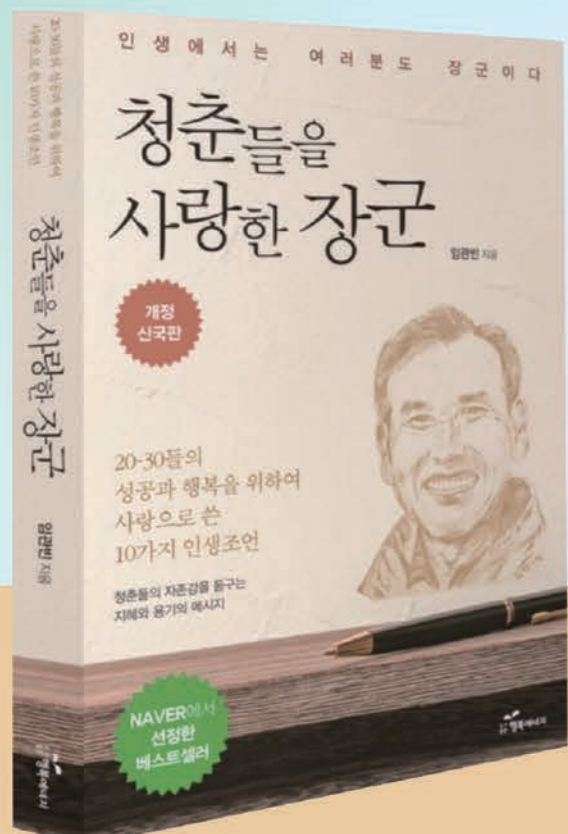
체들 모두 이와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지향점이자 강점의 핵심으로 꼽힌다. 상대방을 인수하거나

아예 매장시켜 버리는 행위가 미국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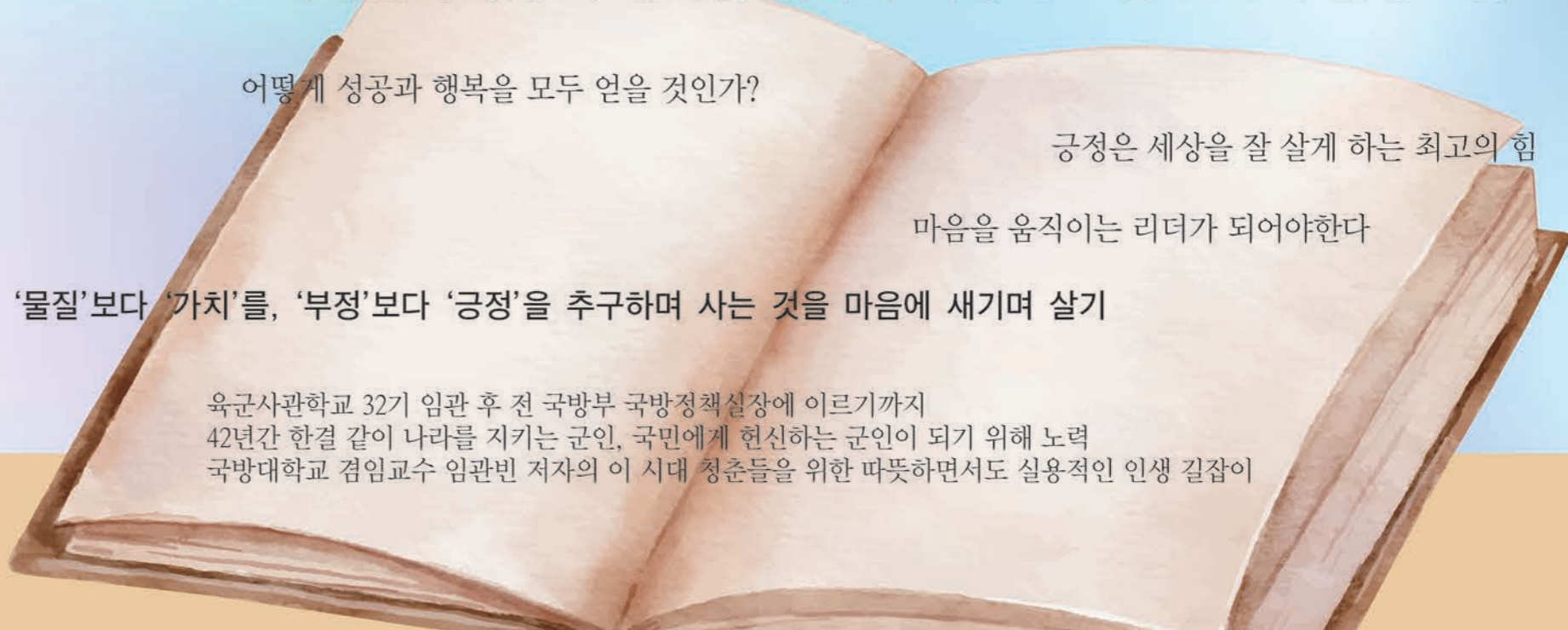
임명선 기자 imms@skyedaily.com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

2030 세대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임관빈 저자 · 행복에너지 17,000 원



어떻게 성공과 행복을 모두 얻을 것인가?

긍정은 세상을 잘 살게 하는 최고의 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물질'보다 '가치'를, '부정'보다 '긍정'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기

육군사관학교 32기 임관 후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이르기까지 42년간 한결 같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 국민에게 헌신하는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 국방대학교 겸임교수 임관빈 저자의 이 시대 청춘들을 위한 따뜻하면서도 실용적인 인생 길잡이

여러분은 각자의 삶에서 장군입니다. 현재 2030청춘들이 본인의 인생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기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